

나토·러시아 '그림자 전쟁' 격화... 발트해 '화약고' 돌변

해저 케이블 절단 빈발...러시아, 독일 감시 헬기 공격

나토, 러 사주 의심 방화·교통방해 등에 적극 대응 천명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이를 막으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충돌하면서 발트해가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림자 전쟁이란 직접적인 전쟁 대신 중요시설 공격,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간섭 등을 통해 상대국의 불안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독일 호위함 F223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최첨단 해군 자산 중 하나인 호위함 머큐리와 머큐리가 호위 중인 유조선을 발견했다.

앞서 발트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F223은 이들 선박의 뒤를 쫓다가 강력한 감시 장비를 보유한 헬기도 출동시켰다.

하지만 러시아 호위함이 플레이어(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를 쏘며 대응함에 따라 헬기는 결국 물러나야 했다.

이 사건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대치 상황의 한 예로 WSJ은 발트해 냉전 이래 핵심 화약고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9일에도 발트해에서는 중국 소유의 벌크선이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독일과 스웨덴을 각각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했다는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서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군함은 나토 군함에 경고 사격을 가했고, 러시아의 강력한 전파 교란 시스템은 유럽의 항공교통을 방해했고, 러시아 전투기는 발트해 상공에서 연합군 정찰기에 연료를 버리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군사적 신호를 넘어 사보타주(파괴 공작)도 횡행했다.

발트해 해저에 깔린 데이터 케이블과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정보부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상업용 선박에 의해 공격받았다.

국제특송기업 DHL을 이용해 상업 항공기에 방화 장치를 운반한 사건이나 런던의 우크라이나 소유 부지 방화 공격, 폴란드 소풍물 화재 등도 러시아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서방은 보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조직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발트해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러시아 공작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나토가 적극 대응을 천명한 이상 발트해에서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발트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가한 경제 제재를 피해 발트해를 통해 석유와 무기 등 주요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

또 발트해에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 해군기지가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도 부동항 해군기지를 두고 있지만, 시리아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지를 잃게 된다면 발트해 의존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 공작에 의한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WSJ은 전했다.

핀란드는 주요 인프라 기업이 백업 케이블과 비상 계획을 구축하도록 돕고 독일은 해운사 등 일부 기업들에 하이브리드 전쟁과 관련해 자세한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러시아' 카벨리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당선 1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트빌리시에 있는 조지아 의회에서 마하일 카벨리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두 번째)이 셀카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행성' 트럼프

밤 시간대 활용 인선 발표·고위 인사 교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내각 인선 발표나 고위 인사와의 교류에 밤 시간대를 자주 활용하며 '야행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정권 인수 작업은 주로 밤에 이뤄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며 "올빼미" 성향으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해가 진 뒤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총 80여 건의 인사 중 45건을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했다. 이 중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밤에 발표된 인선도 다수다.

이날 리처드 스톨리 전 주독일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임대사로 지명한 발표 역시

오후 6시 40분께 이뤄졌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측근, 각료 지명자, 기업 임원, 외국 고위 인사 등과의 교류도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달 2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찾아온 크리스토퍼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도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달 26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도 저녁 식사를 하며 만났다. 저커버그는 수년간 트럼프 당선인과 절교를 관계였지만, 이날 만찬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집권 171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팀 쿡 애플 CEO와도 전날 저녁을 함께했다. /연합뉴스

'금리 슈퍼워크' 미국 내리고 영국 동결할 듯

22개국 이번 주 금리 결정

이번 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한 올해가 금리인하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전 세계에서 최소 22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는 경제 규모로 전 세계의 5분의 2에 달한다.

먼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속도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시선이 쏠려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뉴욕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고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기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오는 1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관적이다.

BOE는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장 충격과 함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모두 고려해 금리를 신중하게 인하해왔는데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오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으로 관측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고, 이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으나 그 뒤는 계속 동결해왔다.

이번 주 북유럽 지역에선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지만, 이번에는 속도를 낮춰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둔화를 멈춤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목표치(4%)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를 23%로, 2%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미국인 두 명 중 1명 "트럼프 2기 '낙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8%포인트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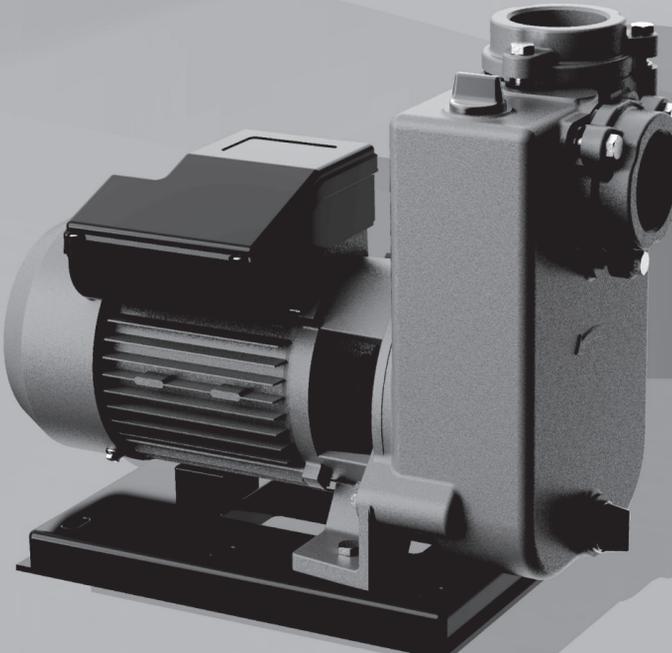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후보 평가와 집권 2기 국정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았다.

정권 인수 후보에 대해서는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의 경우 6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62%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민 정책(신뢰한다 60%), 진정한 국가 리더십(신뢰한다 59%), 외교 정책(신뢰한다 55%), 책임감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신뢰한다 54%), 행정부 인선(신뢰한다 54%) 등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